

2020년 12월 1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식품부 AI 국내방역반 반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서기관 황성철(2555) 제공일: 12월 16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, 도축장 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

□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김현수 장관, 이하 '중수본')는 12월 16일,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장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(AI)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.

○ 도축장(전남 장흥)에 있던 해당 농장 오리에 대한 가축방역기관(전남 동물위생시험소)의 도축장 검사 결과, H5형 항원이 검출*되었다.

* 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, 고병원성 여부는 1~3일 후 나올 예정

□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해당 농장·도축장에 대한 이동통제, 도축장 내 가금 전량 폐기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다.

□ 한편, 중수본 관계자는 “중앙점검단*을 통해 철새도래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, 지속적인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미호천(충북 음성), 섬강(강원 원주) 등에서 낚시·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발견되었다”고 설명하며,

* 농식품부, 축산물품질평가원, 축산환경관리원 6개 조 12명으로 구성되어 농장·축산관계 시설의 방역 조치 사항 등 매일 점검중

- 국민들을 대상으로 “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낚시·산책·사진촬영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에 출입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”을 다시한번 당부하였다.
- 또한 “농장주는 축사 내부의 철저한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및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를 꼭 이행하고,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방역당국으로 즉시 신고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※ 신고번호: ☎1588-9060, 1588-4060